

‘어촌지역사회개발 및 체험’ 교육과정 운영을 마치고



최윤범 한국어촌어향협회 어촌진흥실 과장

들어가며

한국어촌어향협회는 지난 10월 26일부터 31일간 4박5일의 일정으로 어촌지역사회개발 및 체험과정 위탁사업을 운영했다. 본 과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어촌사회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어촌정책 수행능력 제고를 목표로 개설되었다. 이에 해양어촌관광 과정(2014. 10. 20~10. 24)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운영을 할 수 있는 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은 전문교육강좌와 현장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전문교육 강좌로는 어촌지역개발 관련 법령, 어촌경관 개발사례, 국내외 6차산업화 사례, 지역문화 콘텐츠개발 등 어촌개발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제도, 법,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강좌로 구성되어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했다. 현장교육은 6차산업화 성공사례 체험, 우수 어촌체험마을 방문, 지역 관광 콘텐츠 견학 등 어촌지역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농·어촌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실무능력 배양 및 향후 정책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전문 강좌로 어촌지역 개발 이해도 높여

교육에 참여한 41명의 교육생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 임직원으로, 해양과 수산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전문교육은 어촌지역개발에 대한 정책, 법령, 사례에 대한 다양한 강좌로 구성되었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콘텐츠 개발, 창조경제에 대한 강좌도 추가되었다. 주요 교과를 살펴보면 어촌지역개발 관련 법령 강좌는 어촌 법제 체계와 현행 법제의 구조, 어촌지역



〈그림 1〉 콘텐츠 관련 전문강좌

개발 관련 법제의 상호관계, 어촌의 법적 개념 정리 등 법적인 측면에서의 어촌지역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방안을 설명했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대한 법안의 기본구조, 수립 및 효력, 시행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져 교육생들에게 법령의 해석방법, 발전계획법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어촌경관개발사례 강의에서는 경관의 원리, 경관계획절차, 일반 농어촌 장소모형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완도 약산권역, 인천 무의도 포내어촌체험마을 등 경관개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지역문화 콘텐츠개발 강의에서는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과 콘텐츠개발에 필요한 마인드와 시각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풍부한 사례와 다양한 예시로 교육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림 2〉 어촌지역 사회개발 및 체험과정 단체사진

6차 산업화 사례 견학 및 지역 문화 콘텐츠 체험

현장교육은 6차산업 현장방문과 어촌체험마을 관광개발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은 감으로 와인을 만들어 농촌 6차 산업의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청도를 방문해 현장 견학과 강의를 들었다. 청도는 분지지역으로 인구도 적고 주력 산업도 없어 작은 도시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역 특산물인 감을 상품화해서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의 감와인을 탄생시켰다. 감와인의 성공에는 단순한 제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와인터널이라는 관광 아이টে을 만들어 냈다는 것인데, 초창기에는 와인의 숙성을 위해 폐쇄된 터널을 저장고로 이용했으나 이를 더욱 발전시켜 와인터널이라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와인터널에는 와인저장고를 비롯하여 와인 판매, 지역 상품 판매도 이루어지고, 전시장,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하루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주변의 대적사, 청도 소싸움장, 프로방스 빛 축제장 등과도 연계되고 있어 지역 관광 콘텐츠로서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때마침 가을 수확철을 맞아 감을 수매하는 현장도 둘러볼 수 있었고, 직접 감따기를 체험할 수 있었다. 야간에는 프로방스 빛 축제장도 방문하여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 청도에서 다양한 체험과 견학을 할 수 있었다.

교육생들은 와인터널이라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 것에 대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며, 현장에서 강의를 듣고 직접 견학을 하고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유익하다는 평이 많았다.



〈그림 3〉 견학하는 교육생들



〈그림 4〉 감따기 체험

어촌체험마을 운영 사례와 관광 콘텐츠 체험

둘째 날은 거제 다대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여 어촌개발사례와 운영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에서는 다대마을의 자율관리공동체 및 어촌체험마을 운영사례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마을사업을 운영하며, 부녀회, 청년회 등 다양한 조직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해 마을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어촌체험마을 운영의 좋은 사례를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귀어귀촌에 대한 토론의 장이 벌어져 강사 및 교육생들에게도 미래 어촌사회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강의가 끝난 후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람선을 타고 거제 8경으로 소개되고 있는 해금강과 외도, 소매물도 등을 둘러보는 관광 콘텐츠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목적지인 해금강은 바다에 있는 금강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절경으로 그 이름이 붙여졌다는 선장님의 안내 말씀처럼 빼어난 경관을 자랑했다. 선장님의 뛰어난 말솜씨와 재미난 설명 속에 촛대바위, 선녀바위, 해골바위 등 재미있는 명칭과 이야기를 들으며 해금강을 구경할 수 있었다. 뒤이어 도착한 외도는 거제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다대 유람선 외에도 다양한 유람선들이 이곳을 방문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려 외도를 둘러보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어 내수는 물론 외화벌이에도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광자원으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설명중인 선장님의 모습



〈그림 6〉 해금강의 모습

셋째 날은 도장포 마을에서 레저체험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거제조선해양문화관을 방문하여 어촌 민속전시관과 조선해양문화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가족단위의 방문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을 마치고

어촌지역사회개발 및 체험과정 교육구성과 진행에 있어서 어촌체험마을의 잠재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강좌 구성에 있어서도 정책소개에서부터 사례 소개까지 다양한 교육을 구성하여 교육생들에게 폭넓은 지식전달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생들의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좌에 대한 호응도도 높은 편이었다. 특히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현장강의 및 체험을 연계한 교육진행에 반응이 좋았다.

이번 교육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나은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강좌 구성과 더불어 교육생들의 집중도 향상과 주의력 환기를 위해 다양한 교양강좌도 추가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 체험프로그램은 계절과 날씨를 잘 고려하여 현장 중심으로 교육 일정을 선정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과 함께 앞으로도 어촌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현장 방문을 통해 어촌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